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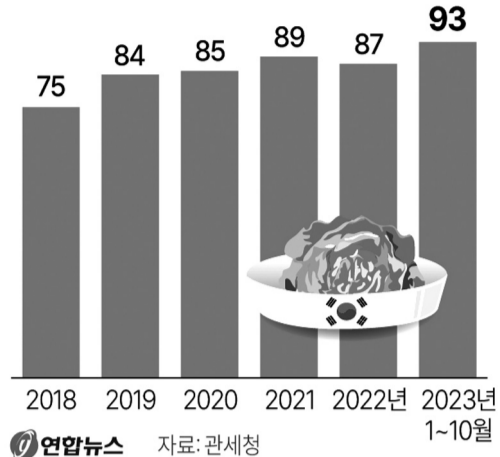
美·유럽서 선풍적 인기 'K-김치'...93개국 식탁에 올랐다

1~10월 김치 수출액 1억3059만달러 10% 증가...수출국 역대 최대 수출 1위국 일본 비중↓...미국·유럽 등 확대 '김치의 날' 제정 늘어

한국 김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국이 90개국을 넘어섰다. 'K-푸드'의 선격인 김치는 음식을 넘어 우리나라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며 1억달러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북미와 유럽의 수출국이 증가하고 이들 지역의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다. 올해 김치 수출액도 '코로나 특수'로 사상 최대를 보인 2021년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김치 수출국은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사상 최대였다. 김치 수출국이 90개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10년 전인 2013년(61개)보다 32개나 증가한 것이다. 김치 수출국은 코로나 특수를 누린 2021년 89개국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87개국으로 소폭 줄

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1~10월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도 10.1% 증가한 1억3059만달러로 연말까지 기존 증가세가 이어지면 2021년의 사상 최대 기록(1억 5992만달러)을 경신할 수도 있다. 올해 1~10월 김치 수출량은 3만7110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 늘었고 역시 기존 증가세가 지속 되면 2021년 기록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0월 김치 수출액을 수출국별로 보면 일본이 전체의 40.5%인 5284만달러로 1위였고 이어 미국(3331만달러), 네덜란드(614만달러), 영국(494만달러), 홍콩(490만달러), 대만(475만달러), 호주(466만달러), 캐나다(437만달러), 싱가포르(255만달러) 등 순이었다.

김치 수출국 추이



김치 수출국 10위 안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가 5곳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이들 서구권 국가의 수출 성장 속도가 전통적인 수출국인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보다 빠른 편이다.

김치 수출액 1위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 수출액이 6581만달러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이 비중이 40.5%로 축소됐다. 반면 미국 수출액은 2013년 495만달러에서 올해 3331만달러로 커졌고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도 5.5%에서 25.5%로 대폭 커졌다. 또 네덜란드 수출액 비중도 2013년 1.0%에서 올해 4.7%로 커졌고 영국은 1.6%에서 3.8%로 높아졌다. 미국에서는 김치가 과거에는 한인 마트 등에서만 선보였으나 현재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현지 대형 유통 채널에서도 판매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K-김치의 인기를 증명하듯 '김치의 날' (11월 22일)을 기념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영국 런던 남서부 자치구인 킹스턴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한 곳이다. 한국 김치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외국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데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 속에 K-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김치가 K-푸드 대표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날을 맞아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4회 김치의날 기념식'을 연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치 재료 11가지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성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11월 22일로 정했다. 올해는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세계김치연구소,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3곳이 함께 기념식을 준비했다. 기념식 이후 김치평명회 수상작 전시, 김장문화 공연, 김치 과학 토크콘서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김치는 식품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문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행사 참석자들에게 "김치 중추국의 자부심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올 크리스마스코 '푸빌라'와 함께

21일 광주신세계 본관 1층에 설치된 신세계 대표 캐릭터 '푸빌라' 인형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고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양한 소품들로 꾸민 포토존을 마련했다. 또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 '이로(IRO)'에서는 푸빌라와 스키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의류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무·깎마늘 등 김장재료 채소값 안정세

건고추는 25% 급등

김장에 필요한 채소와 양념류의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격정보 2318호'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양동시장의 무 1개 가격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22.3% 저렴한 15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깎마늘(1kg)은 9000원으로 전년(1만원) 보다 10% 내렸고, 양파(1kg)도 3.4% 저렴한 2300원, 당근도 전년(4560원)보다 4500원 선이었다. 새우젓(1kg)도 1만1300원으로 1000원(8.1%) 싸졌으며 멸치액젓(1kg)은 작년과 비슷

한 5330원이었다. 배추 1포기 가격은 전년보다 비쌌지만,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2주전(4910원)보다 18.5% 하락한 4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다만 건고추의 가격이 전년보다 많게는 25%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에 필요한 채소류를 제외한 쌀과 고구마, 감자, 시금치, 상추 등 농수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쌀(20kg)은 지난해보다 9.2% 비싼 5만6000원, 시금치(100g)도 6100원으로 160원(34.7% ↑) 올랐고, 상추(22.0% ↑), 오이(14.3% ↑) 등도 판매가격이 오른 것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하반기 확대간부회의 개최

성과 점검·준중 일터 만들기 강 의도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2023년 하반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펜데믹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첫 대면 간부회의로 전국 부서장 15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실적 점검과 성과 독려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부서별 사업 실적과 손익 전망 발표 등 공사 현안과 협조 사항을 시작으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변화, 관리자들의 역할 등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작자 김연준 신부가 강사로 나서 '준중 일터 만들기 선언' 강의를 진행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 핵심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정령 등 기반에 충실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선진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관리자들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천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지스타 2023'서 광주 게임 콘테츠 선보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스 운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스타 2023'에서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게임 공동관 부스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3'는 지난 16-19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올해 지스타는 총 3250부스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지난해(18만 4000여명)보다 7.1% 늘어난 19만 7000여명이 방문했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지스타에서 광주지역 게임 콘테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관 부스를 운영했다. 지스타에서 광주지역 게임업체 8개사(지니소프트,

트, 일이옥, 피플러그, 맨인블록, 제이커브이엔티, 국밥, 레인디어게임즈, 와이즈빌)는 공동관 부스를 차리고 게임 콘테츠를 선보였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지스타 2023에서 지역 게임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며 "지스타 2023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게임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유저분들께 더욱 좋은 게임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글 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